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 나타난 농경문화의 브리콜뢰르적 변용과 협력의 의미*

전주희**

〈차 례〉

1. 들어가기
2. 다양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브리콜뢰르적 변용
3. 농경문화의 절기와 농경공동체의 협력
4. 나오기

〈국문초록〉

이 연구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가 배경하는 ‘농경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전체 서사에서 인물들이 겪는 갈등 관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할머니와 호랑이의 대립, 둘째는 호랑이와 할머니 집에 있는 여러 비인간 존재들의 대립이다. 물론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할머니와 가내 구성원들의 협력이 배후에 동반된다. 여기서 전자의 갈등은 할머니가 느끼는 ‘노동’의 고단함으로부터 촉발되며, 후자의 대립은 할머니가 만든 ‘팔죽’의 증여를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의 갈등과 협력이 모두 농경문화에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해왔던 것일뿐더러, 노동의 고단함은 결국 팔죽이라는 수확 행위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협력에 더 초점을 두었는데, 갈등은 그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주체의 내면에서 비가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협력은 아무와 하지 않으며 반드시 가시적인 양상과 효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협력의 타당한 배경과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2장에서는 인물들이 협력하는 양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는 협력의 세트가 기존 농경문화에서 수행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브리콜뢰르적 변용’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할머니와 호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조교수

랑이의 대립을 촉발한 농사일의 고단함이 비농경의 삶을 호출하지만, 역설적으로 다시 농경문화로서 주기적인 생활문화, 다양성, 분업화 그리고 협력의 힘을 증명하고 강화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팍죽할머니와 호랑이>는 인류가 농경문화를 영위해오면서 겪었던 자연, 노동, 적의 위협,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을 인물들의 대립과 협력, 자연의 절기를 소재로 삼아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 <팍죽할머니와 호랑이>, 농경문화, 브리콜라주, 협력, 다양성, 분업화, 비농경, 절기(節氣)

1. 들어가기

본고는 설화 <팍죽할머니와 호랑이>가 인간의 농경문화에 대한 딜레마적 정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그것을 향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야기에 나타난 두 가지의 갈등 관계를 통해 도출되는데, 하나는 할머니와 호랑이의 갈등,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비인간 존재들과 호랑이의 대립이다. 전자의 대립은 농사일에 지친 할머니와 호랑이의 만남을 통해 농경문화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고단함과 사냥으로 살아가는 호랑이의 자유와 힘을 대조시킨다. 후자의 대립은 농경공동체가 이루는 협력의 힘과 강자이지만 일개에 불과한 호랑이의 약함을 대조시킨다. 곧 본고는 등장인물 간의 ‘대립’과 ‘협력’의 양상을 살핌으로써 농경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하는지, ‘왜’ 협력하는지를 초기 인류의 농경문화의 특징에 기반하여 논의한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제시하는 협력의 특성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전래동화로서 향유되어 왔으

며, 강자인 호랑이의 횡포에 맞서는 약자들의 협공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 적절한 교훈과 재미를 선사한다. 실제로 힘없는 민중이 힘을 합쳐 탐욕스러운 권력자(호랑이)를 물리치는 이야기로 해석되기도 한다.¹⁾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인 할머니와 호랑이를 힘의 유무에 따른 상하·권력관계의 구도가 아니라, ‘농경문화’와 ‘야생’(수렵 및 채집)의 대립 구도로 보고자 한다. 밭과 그곳을 일구는 할머니의 집이 이야기의 배경이고, 호랑이를 제외한 다른 등장인물들이 비록 의인화되었지만, 모두 전통 농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 -자라, 게, 소똥, 개똥, 달걀, 알밤, 맷돌, 절구통, 명석, 지게 등이기 때문이다. 호랑이는 농경문화와는 사뭇 이질적인 야생의 짐승이며 이따금 촌락으로 내려올 수 있지만, 본래의 서식지는 야산이다. 게다가 호랑이는 육식동물로서 오로지 사냥으로 생존을 유지한다. 물론 대부분의 육식·잡식 동물은 사냥 활동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호랑이로 대변되는 ‘비농경’의 상황이다. 이야기 속 호랑이의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정착하여 경작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사냥으로 생을 유지하며 심지어 다른 이가 경작한 수확물(밭)까지 얻어먹으려고 한다. 호랑이로 비유되는 비농경 문화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이전의 수렵 채집 사회를 상징할 수도 있으나, 이어지는 호랑이의 위협은 농경을 시작한 이후에 인류가 마주했던 중요한 문제인 수확물의 분배 및 저장에도 관련된다. 곧 ‘공평한 분배’와 수확물의 ‘안전한 저장’이 관건이다. 여기서 저장은 수확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저장 기술보다는 식량을 탐내는 타자의 침입을 막고 그것을 보존하는 차원의 것을 말한다.

1) 권혁래,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762쪽.

신혜선, 「전래동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의 의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467~487쪽.

이 이야기를 농경문화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신연우²⁾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를 〈녹두영감과 토끼〉와 비교 대조하면서 농경문화가 시작되는 즈음에 발생했을 인간과 자연(동물)의 대립과 두 이야기의 갈등 해결 방식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야기들의 화소와 결합방식을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이야기에까지 적용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문화와 야생’의 대조가 드러나는 설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정규식³⁾은 등장인물들의 협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자연물과 도구들이 외부의 위협에 대처하고 힘을 모으는 방식을 생태학적 니치(nitch)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생태적 유기체들이 지닌 각각의 특성이 변화된 환경에서 형질 변화를 통해 적응()하고 위기에 대처하여 생존하는 방식을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협력 행위에 적용함으로써 공동체의 존속이 공생과 연대에 있음을 상기하였다. 최성미⁴⁾는 이 이야기의 주요한 소재인 팔죽과 부엌이라는 공간에 집중함으로써 한국의 세시풍속인 동지()와 가신신앙의 하나인 조왕신과 같은 민속문화 요소가 서사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박성혜⁵⁾는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ct Network Theory)을 활용하여 이야기 속 비인간 존재들이 협력하는 방식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는데, ANT 이론의 네 번째 단계인 ‘동원하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이야기가 권력의 중심점이 없는, 구성원들의 평등한 연대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ANT 이론을 적용하여

2) 신연우, 「〈녹두영감〉과 〈팔죽할머니〉 설화의 문화사적 이해」, 『구비문학연구』 41, 한국구비문학학회, 2015, 1~28쪽.

3) 정규식,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의 니치적 특성과 공생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 『탈계인문학』 13(2), 이화인문과학원, 2020, 113~137쪽 참고.

4) 최성미, 「전래동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 나타난 민속학적 요소의 다층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30, 2022, 179~214쪽 참고.

5) 박성혜, 「설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 나타난 비인간의 힘」, 『구비문학연구』 68, 한국구비문학학회, 202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157~188쪽.

옛이야기 속 비인간의 힘을 조명한 점은 독창적이었지만, 비교적 중요한 네 번째 단계인 ‘동원하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ANT 이론의 핵심이 되는 ‘번역’의 과정을 완수하지 못한 점, 그리고 그 부재의 의미를 다소 평이하게 해석함으로써 좋은 이론을 애써 텍스트에 적용한 의의를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처럼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문화’나 ‘협력’을 키워드로 하여 다룬 연구들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농경사회의 특징이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공생 관계 및 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농경문화와 협력의 두 영역을 각각 독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농경문화라는 ‘맥락’ 안에서 인물들의 ‘협력’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연결하지는 못한 듯하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농사짓는 인간과 그를 둘러싼 자연물 및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서로 돕고 연대한다. 또한 인물들의 협력 행위의 근간이 되는 호랑이와의 ‘갈등’ 관계를 농경과 비농경의 대립 구도에서 보면 농경문화의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행위와 목적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옛이야기에서 인물들의 ‘행위’와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야기 세계의 걸을 드러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물들이 협력하고 대립하는 모습은 전승 집단의 세계관이나 가치의 지향 및 대립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본고는 농경문화를 구성하는 개체들이 언제, 어떻게, 왜 협력하는지 그 협력의 ‘창발 조건’을 살핀다. 또한 인물 각각의 특징과 그들이 대립하고 협력하는 행위가 농경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는지를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비인간 존재들 각자가 지닌 주요한 특성과 기능을 살피고, 이들이 호랑이 퇴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들이 지닌 자질을 특수한 맥락에서 잠정적으로 전환하여 발휘하는 모습을 분석한다. 이는 단순히 힘을 모으는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자의 힘을 발휘하고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전략

적 움직임이다. 동시에 각자가 평상시에 존재하고 사용되었던 농경의 맥락을 벗어나 또 다른 특수한 상황에 적소()하는 변용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브리꼴되르적 변용’이라고 칭한다. 3장에서는 등장인물들과 이야기 소재들이 본래 놓여 있던 환경으로서 농경문화를 재조명하고, 등장인물들, 곧 행위자들의 ‘생태적 환경’에서 요구되는 ‘협력’ 자체의 필요성과 조건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들의 공생과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순환적 주기 안에서 때()마다의 역할에 충실한 것임을 주장한다.

곧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는 농경문화의 고된 ‘노동’, 때를 맞추어서 경작하는 ‘기다림’, 생산을 위한 노동력의 ‘다양성’과 ‘분업화’를 비유적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봄·여름·가을에 요구되는 고된 농사일이 한편으로는 수확의 기쁨이 되고, 나아가 겨울의 시간을 무사히 보내게 하는 통과의례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시간의 흐름 안에서 때마다 이루어지는 존재들의 협력이 상생의 중요한 동력이 됨을 보여준다.

2. 다양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브리꼴되르적 변용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는 할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랑이에 대항하여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이 펼치는 협공이 해학적으로 나타난다. 각편들을 참고하여 대략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팔발의 김을 매러 나갔다. 일이 너무 고단하여 할머니는 누가 밭을 대신 매준다면 자기를 잡아가도 좋겠다고 푸념했다. 그때 호랑이가 나타나 자기가 밭을 다 매면 할머니를 잡아먹어도 좋겠다고 묻자 할머니가 그리하라고 했다. 호랑이는 금세 팔발을 다 매고 할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팔을 거두어서 팔죽이라도 한번 끓여 먹고 나면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라고 하였다. 호랑이가 그리하겠다고 사라진 후 가을이 되자 할머니는

팔을 거두어 팔죽을 끓여놓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할머니가 왜 우는지 물었다. 할머니가 이 팔죽을 먹고 나면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올 것이기에 슬퍼서 운다고 말했다. 파리는 자기에게 팔죽 한 그릇을 먹게 해주면 할머니를 살게 해주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파리에게 팔죽을 주었다. 파리는 그것을 먹고 날아갔다(천장에 붙었다). 할머니가 또 올라 밤 한 알(혹은 달걀)이 굴러와서 그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똑같이 대답했고, 알밤도 할머니의 팔죽을 얻어먹고 부엌 아궁이에 들어앉았다. 그렇게 계속 송곳(막대기), 게(자라), 개똥(소똥), 절구통(멧돌), 멍석, 지게가 차례대로 할머니에게 와서 우는 사연을 듣고 팔죽을 얻어먹고는 부엌과 마당으로 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호랑이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방 안으로 호랑이가 들어오려고 하자 천장에 붙어 있던 파리가 날아와 등잔불을 꺼버렸다. 할머니가 깜깜해서 불이라도 켜야 한다며 호랑이보고 아궁이에 가서 불씨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호랑이가 아궁이를 뒤지니 달걀(알밤)이 튀어나와 눈알을 때렸다. 호랑이가 뜨거워 죽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부엌 항아리에 물이 있으니 거기다 눈을 씻으라고 말해준다. 호랑이가 앞발을 물에 담그니 게(자라)가 나와서 호랑이 발을 콕 물었다. 호랑이가 깜짝 놀라 물러서다가 개똥을 밟고 미끄러져서 나자빠지니 부엌에 서 있던 송곳에 찢려 팔씩팔씩 튀었다. 부엌문을 뛰쳐나오는 중에 부엌 문지방에 숨어있던 절구통이 호랑이 머리에 떨어졌다. 호랑이가 마당으로 나와 덩구니 멍석이 호랑이를 돌돌 말았다. 그리고 지게가 와서 멍석을 싣고는 강으로 가서 호랑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⁶⁾

할머니에게 팔죽을 한 그릇씩 얻어먹은 할머니 집의 구성원들은 무작위

6) 이야기는 다음의 각편들을 참고하여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호랑이와 할머니〉, 『구비문학대계』 8-4, 308~312쪽.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구비문학대계』 8-5, 175~180쪽.

임석재전집 2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편)』, 평민사, 1989, 58~59쪽.

임석재전집 7 『한국구전설화(전라북도편)』, 평민사, 1993, 182~185쪽.

임석재전집 10 『한국구전설화(경상남도편)』, 평민사, 1993, 97~98쪽.

임석재전집 12 『한국구전설화(경상북도편)』, 평민사, 1993, 59~61쪽.

로 선택되지 않았다. 농경문화와 전통 농가를 배경으로 하여 사실적·의도적으로 선택된 것들이다. 자연물(생명체)인 ‘자라’와 ‘개’는 연못과 논밭 주변에 진흙이나 물 고인 곳에서 지낸다. ‘알밤’이나 ‘달걀’은 생산물로서 할머니 집 주변에 밤나무가 있음을, 혹은 할머니가 닭을 키우고 있음을 나타낸다. ‘개똥’ 혹은 ‘소똥’도 마찬가지다. 농가에서 흔히 키우는 가축인 개와 소의 존재를 암시하면서 자라, 개와 함께 농촌의 생태환경을 반영한다.

도구로서 등장하는 송곳(막대기), 절구통(맷돌), 멍석, 지게 등도 농경문화의 주요한 발명품들이다. ‘송곳’이나 ‘막대기’는 길고 뾰족한 특성이 있어서 물건을 뚫거나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여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데 유용하다. 상대적으로 막대기는 나뭇가지를 포함하여 농가에서 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흔한 물건이다. ‘절구통’이나 ‘맷돌’은 수확한 농작물을 가공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로서 곡식을 찧거나 갈아서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드는 데 이용된다. ‘멍석’은 주로 수확물을 널어놓고 말리는 데 쓰이며 ‘지게’는 무거운 물건들을 싣고 이동하는 데 쓰인다. 이 이야기가 농경을 시작한 인류와 자연(동물)의 갈등 및 그 해결 방식을 드러낸다고 본 신연우의 연구⁷⁾에서 이러한 도구들은 분명 야생과는 다른 ‘문화’(문명사회)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야기에서 비인간 존재들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행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위자로 나타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인간 구성원들이 평소에는 ‘생산’ 혹은 ‘생산물’을 처리하는 관련한 활동을 하지만⁸⁾, 호랑이를 대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빨리 호랑이를 퇴치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바뀌는데, 각자가 지닌 다양한 자질들 중의 일부 특성을 ‘공격성’과 ‘위해성’으로 탈바꿈한다.⁹⁾

7) 신연우(2015), 앞의 논문, 13쪽.

8) 여기서 생산()은 농업과 관련한 것을 일차적 의미로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개체의 생존 행위까지 포함한다. 자라와 개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자연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이들의 활동은 자연환경의 순환과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

곧 ‘생산’과 ‘삶’을 지향하는 기능들이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어로서 ‘사냥’과 ‘살상’을 유도하는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은 레비스트로스가 신화적 사유를 설명하면서 비유했던 ‘브리콜뢰르’적 변환과 일맥상통한다. 브리콜뢰르는 ‘아무 것이나 주어진 도구를 써서 자기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에 대비하여 가리키는 말’¹⁰⁾로서 신화적 사고의 특성을 드러낸다. 한정된 재료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신화는 무슨 과제가 주어지든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므로 신화적 사고는 일종의 지적인 ‘손재주’(브리콜라주)¹¹⁾다. 말하자면 브리콜뢰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료와 부품들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구성을 꾸린다. 못과 망치를 가지고 두 개의 나무 조각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못으로 천(fabric)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망치를 천 위에 올려놓아서 그 무게로서 천이 바람에 펄럭이거나 날아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브리콜레르는 하나의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 물건들의 구조를 완전히 재구성하며 그것은 막연히 상상했던 것과 결코 동일하지도, 애초의 것보다 더 낮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¹²⁾ 그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구성들을 ‘잠정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는 도구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면서 문제 상황을 타개할 창의적 해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브리콜라주 개념은 기존의 지식이나 제도를 비틀고 횡단함으로써 생성되는 창의적 활동에 의미를 부여한다. 브리콜라주의 의

9) 정규식(2020)은 등장인물들의 기능 변환을 ‘형질 변화’로 설명하였다. 생태학과 니치의 관점에서 등장인물들의 변화는 개체의 적응을 위한 자발적인 형질 변화로 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신화적 사고와 도구의 관점에서 ‘브리콜뢰르적 변용’이라고 하겠다. 사실 형질 변화에 비해 브리콜뢰르적 변용은 변화된 상황에 더 빨리, 유연하게 적응이 가능하다.

10) 레비 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2005, 70쪽.

11) 레비 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2005), 위의 책, 70쪽.

12) 레비 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2005), 위의 책, 73쪽.

미를 정치나 사회적 맥락에 놓고 은유한다면, 하나의 기능이나 역할에 머물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으로도 볼 수 있겠다.

한편, 이야기에서 존재들의 브리콜리르적 전환은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나 ‘자질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다. 즉 하나의 자질이 특정한 목표를 위해 선택되며 선택된 자질, 곧 각자의 ‘그라운드’(ground)¹³⁾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연결·통합됨으로써 유효한 힘을 발휘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된다. 주어진 환경에서 존재하는 비인간 존재들의 행위는 호랑이 퇴치를 위해 필요한 협력의 세트이며, 이는 전통적 농가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한 브리콜라주이다.

예를 들어, 자라와 게는 각각 특유의 생김새, 색깔, 습성, 움직임 등이 있다. 자연 생태계에서 둘은 서식지를 공유하며 게는 천적인 자라의 먹잇감이 된다. 이야기의 다양한 각편에서 둘 중에 하나가 늘 등장하는 것은 이야기가 실제 이들의 생태환경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라와 게가 인간에게 잡혔을 때는 그것들은 우리 몸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음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뿔죽할머니와 호랑이〉에서 이들은 호랑이 퇴치라는 목표 아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존재 맥락을 벗어난다. 자라의 ‘주둥이’와 게의 ‘집게발’은 살아있는 다른 생명체를 물고 찢고 자르는 등의 공격 행위에 활용된다. 게다가 이야기에서 자라의 ‘어두운 색깔’, 게의 ‘작은 크기’는 어두운 부엌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둘 다 물이 찬 항아리 안에서 오랜 시간 숨을 쉬며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달걀’과 ‘밤’은

13) 움베르토 에코는 퍼스의 기호학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저서에서 그라운드를 ‘대상의 속성’이라고 말한다. 대상은 일정한 방식으로 ‘선택’되며, 그라운드는 대상의 ‘가능한 술어’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통적 속성’이자 하나의 내포이다. 여기서 대상의 가능한 술어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특성들을 말한다. 예를 들면, 오이는 푸른색이다, 길다, 울퉁불퉁하다, 물기가 있다 등으로 오이를 표현할 수 있다.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2009, 48쪽.

자연물이면서 누군가의 먹을거리가 되지만, 이야기에서처럼 불로 달구어진 달갈과 밤은 익는 과정에서 ‘딱딱’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뜨겁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투척될 경우, 맞는 이에게 화상과 타격을 입히는 위험물이 된다.

또한 평소에는 농작물의 거름이 될 뿐일 것 같은 ‘개똥’(소똥/물똥으로도 표현됨)은 그 ‘미끌거림’으로 호랑이를 넘어지게 한다. 더군다나 그것의 색깔은 부엌 바닥과 비슷한 ‘황토색/흑색’으로 눈에 잘 띄이지 않아 무심코 밟로 밟으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송곳’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크기이지만 그 ‘뽀죽함’(예리함)으로 필요한 곳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생물체의 피부를 찌를 경우, 깊게 파고들어 꽤 심각한 통증을 유발한다. ‘절구통’(절구공이)이나 ‘맷돌’은 수확한 곡식을 먹기 좋게 가공하는 데 쓰이는 농경 도구이다. 둘 다 무게가 무겁고 마찰의 힘이 커서 단단한 곡식을 잘게 부수거나 가는 데 이용한다. 이러한 물체의 ‘육중함’은 낙하할 때 무기로 변한다. 곧 부엌 천장에서 떨어지면서 호랑이에게 상당한 물리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다. ‘멍석’은 본래 널따랗게 펼쳐서 수확한 것들을 털거나 말리는 데 쓰이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오히려 호랑이를 둘둘 감싸 ‘결박함’으로써 상대를 부동()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지계’의 ‘적재성’() 및 ‘이동성’과 같은 본래의 기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지만, 호랑이를 처치하는 데는 여전히 유용하다. 지계는 호랑이를 짊어지고 육지 생물에게는 위험한 장소, 곧 강이나 바다로 데려가 던져버리는 역할을 한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파리’는 이 모든 공격과 위해()를 가하기 전에 호랑이를 어두운 부엌으로 유인하는 미끼로서 활동하는데, 작은 파리가 확하고 날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바람은 호랑이가 침입하려는 할머니방의 불을 꺼버려서 불씨를 찾으려는 호랑이를 공격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부엌으로 향하게 한다.

이처럼 평소에는 자연의 생태환경과 농경문화에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

을 하는 존재들이 호랑이를 공격하고 심지어 살해하는 도구로 변용() 되는 지점은 중요하다. 이것들은 각자의 특성과 기능을 ‘생산’ 활동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향한 ‘공격’과 ‘위해’ 행위로 탈바꿈한다. 이러한 전환은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대립쌍에도 관련된다. ‘문화와 야생’에서부터 ‘농경과 사냥’, ‘농번기(봄·여름·가을)과 농한기(겨울)’, ‘생장과 사멸’, ‘개인과 집단’, ‘공격과 방어’ 등에까지 이르는 의미 대립은 등장 인물들이 놓인 갈등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은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을 제압하고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자인 등장인물들에게는 발상의 전환, 곧 브리콜레르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브리콜레르라는 말 자체는 도구와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상기시키는 데, 이는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의 ‘능력’과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자유자재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리콜레르가 가진 도구들의 세트는 서로의 속성이 가지각색인 ‘다양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곧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들의 변용에 발휘되는 창의성은 그 도구들이 지닌 다양성에 기반한 것이다. 각기 다른 질적·기능적 특성이 도구들의 세트에서 잠재적으로 공존할 때 그것은 브리콜레르의 판단과 창의적 활용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호출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다양성을 무질서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잠재적 풍요로움이다. 다양성은 그야말로 어떤 대상과 상황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할 지식과 도구의 창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등장인물의 도움 없이 오로지 수많은 송곳으로 호랑이를 찌르거나 여러 개의 절구통(맷돌)을 던져 호랑이를 퇴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니와,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활용하여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하면서 목표물을 퇴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바라보기를 유도한다. 곧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구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데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하나의 시발점이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이들의 창의적인 브리콜라주적 변용이 ‘협력’을 통해 실천되고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의 협력은 단지 할머니의 팔죽을 얻어먹은 개체들의 보은 행위나 계약 관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호랑이의 퇴치는 궁극적으로 농경공동체의 자신들의 존속을 위한 것이다.

3. 농경문화의 절기와 농경공동체의 협력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설화 중에는 서두에 농경문화의 시작을 암시하는 듯한 것이 있다.

산골에, 어테 편편한(평평한) 데만 인제 찾아가는기라. 그레 이레 찾아간게네로, 덕석 한 님 짙어지고 이레 찾아간게네로 참, 어 한 산골이, 이 , 파전해 목기가 존 테(좋은 테)가 있거덜. 인자 거 나라(내려) 에 지고 인자, 기양(그냥) 집도 절도 없이 한 해를 넘겼어(넘겼어)(중략).... 수수도 숨구고 강내이도 숨구고, 서숙도 숨구고 인자 이레 가지고, 그러구로 인자 농사를 지었는데, 그레 인자 ...(중략)... 수숫대가 나오길래 인자 그 움막같이 지가지고, 영감 할마이 잘라꼬, 고 집을 짓는기라. 그레 집을 지나에지고 이 영감 할마이 그따가 인자 몸을 붙이에지고 띠장을 띠다가 인자 구들걸이 봐 놓고(중략).... 그 쌀 기경도 못하고, 보리쌀 기경도 못하고 아예 쌀밥은 못 먹고 인자, 그 콩, 팥 그런 가나 묵고, 강내이나 묵고 인자 이래사는데 고만 영검이, 이레 살다에 영검이 앞에 죽어빠러어. 그레 할마이 혼자 사는 기라. 그 깊은 산골짜에서. 그레 사는데.¹⁴⁾

인용문에는 부부가 얼마 안 되는 살림으로 정착할 터전을 찾아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는 장면이 나온다. 이들은 처음부터 본격적인 벼농사를 짓지 못하고, 단지 화전〔 /파전〕을 일구어서 수수, 옥수수, 콩을 심고, 천천히 구들장을 얹혀 거주할 집도 짓는다. 농경과 정착의 초기 단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밭에 일하러 나간 할머니의 푸념이 나타나는 것도 있다. 그 푸념은 농사의 고됨을 반영한다. 지금도 인류에게 농경이 요구하는 노동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할머니의 푸념은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경험했을 음식과 노동에 관한 탈레마적 정서가 녹아 있다. 곧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움직여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에 한 할마씨가 팔밭을 쪼는디 날마중 나매냥으로 날마당 쪼이께네 고 단하기 짝이 없지. 그리서 고단해서 누가 이 팔밭 쪼이주문 나 잡어가도 조 오치 췌다. 그라이 참말인가고 하는 소리가 났다. “할마이 고 말이 참말인가?” 키는 소리가 났다. 그렇다 하이께 호랭이가 툇 튀어나왔다.¹⁴⁾

할머니가 농경의 고됨을 토로하면서, ‘밭매는 것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하는 장면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사를 포기하고 싶다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은 농경사회와 완전히 이질적인 야생의 삶을 사는 호랑이를 호출한다. 농경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수확의 이면에는 홀로 농사를 짓기에는 힘이 부치는 노인의 나약함과 두려움, 수확에 이르기까지 투여해야 하는 노동의 고됨과 기다림이 있다. 이것은 먹이가 보이면 민첩하게, 강한 힘으로 먹이를 포획하고 제압하는 사냥의 활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농경의 포기는 인간 문명으로부터의 이탈이며 야생으로의 회귀를

14)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구비문학대계』 8-5, 176쪽.

15)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명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 임석재전집 12 『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편), 59쪽.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할머니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들’(밭)의 공간은 유의미하다. 할머니와 호랑이의 이질적인 생()의 양식이 여기서 조우하는데, 들판은 할머니가 존재하고 경작할 때는 밭, 곧 농경 문명의 공간이 되지만, 할머니가 죽고 작물도 자라지 않는다면 호랑이가 어슬렁거릴 수 있는 야생의 자연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경적 삶의 포기조차 할머니에게는 죽음과 닿아있다. 할머니의 푸념은 이 힘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면 좋겠다는, 다시 말해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바람이며, 이는 힘든 노동을 그만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결과적 언술이다. 이 말은 순식간에 농경 주체로서의 할머니를 맹수의 사냥에 포획될 수 있는 먹잇감이 되게 만든다.

참 사람도 귀하고 머새소리 빼게 안 나고 이래 참 지적하게(적적하게) 할미가 죽도 사도 못해서 이래 사는데. 한분은 밭을 맨께, 하도 심심하고 이, 참, 너무나 이로운 맘이 들어서 청성을 떴게네로 그 산에서 호래이가 한 마리 앞에 와서 터억 주굴바시고 “할미야, 와 청성을 빼노?” “하도 지금 마음이 안 대써서 그래 청성을 뺐다.” 칸께네로 “그라마 너하고 나하고, 안 심심하구로 너하고 나하고 굶방을(내기를) 하자. 밭매기.” 카저딩.¹⁶⁾

위의 인용문에서 호랑이가 제안하는 밭매기(김매기) 내기는 처음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다. 호랑이가 발휘할 수 있는 속도와 힘은 할머니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 사냥하는 자의 ‘민첩함’은 농경하는 자의 ‘우직함’과 대비된다. 할머니가 이기기 위해서는 밭매기를 누가 빨리 끝내냐가 아니라, 누가 더 꼼꼼하게 김을 매고 밭 두둑을 잘 만들어서 팔이 잘 생장할 수 있게 만들었느냐로 판가름했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 힘의 양과 속도의 측면에서 할머니의 노동력은 호랑이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16)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구비문학대계』 8-5, 176쪽.

그러나 그런 미약함은 비인간 존재들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보장된다. 호랑이는 강자를 상징하는 동시에 농사에 필요한 노동을 하지 않는 비농경, 야생의 삶을 상징한다. 호랑이는 강한 힘으로 다른 먹이를 사냥하고 살며, 약자를 위협하여 자신이 기르지도 않은 농작물을 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힘은 농경 사회에서 다양하게 분업화·전문화된 구성원들의 힘으로 제압된다. 그리고 이들이 지닌 다양한 속성들의 공격 행위는 촘촘하게 연결됨으로써 호랑이 퇴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파리, 자라(게), 알밤(달걀), 개똥(소똥), 송곳(막대기), 맷돌(절구통), 멍석, 지게 등은 사실상 농경 사회의 생태적 환경과 농사를 짓는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역할과 재능을 비유한다. 곧 분업화된 구성원들을 의인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협력은 농경 사회에서든 수렵채집 사회에서든 동일하게 발견되며 또 필요한 행위이다.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자질을 가진 개체들의 분업화와 협력은 절실할 것이다. 사실 협력은 협력하는 주체의 의식적 자각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존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생물계에서는 당사자가 서로 연관이 없고, 심지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협력이 일어난다.¹⁷⁾ 다시 말해, 우정이나 지능이 없어도 협력은 발생가능하다.¹⁸⁾ 인간을 포함하여 무리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모든 생물 종은 협력을 통해 개체의 생과 종의 번식을 유지한다.

다만 협력은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다. 협력함으로써 일정한 이득이 기대되고 실현될 때 가능하다. 다시 말해, 협력이 창발되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첫째, 아주 작게나마 협력으로 인한 ‘대가’나 ‘이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력하는 주체들이 이후에 서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관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지속적 상호작용의 가능성). 한번 보고 만나지 않을 상대라면

17) 로버트 액셀로드, 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12(2쇄), 45쪽.

18) 로버트 액셀로드, 이경식 역(2012), 위의 책, 94쪽.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함으로써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먼 미래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득이 되면 협력이 잘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중요성’이 클수록 협력은 잘 일어난다.¹⁹⁾

협력의 창발 조건을 참고하여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서 발견되는 협력을 이해하면 인물 간의 대립과 협력 행위의 배경이 더 잘 이해된다. 이들의 공고한 협력은 단지 팔죽 한 그릇의 증여로 이루어진 일회적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협력의 두 번째 조건을 근거로 보면, 이들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호혜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농가를 중심으로 공간적·물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어 쉽게 연대성을 형성할 수 있다.²⁰⁾ 사실 이들에게 팔과 할머니의 존재는 중요하다. 팔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팔죽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할머니가 없다면 팔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또한 할머니가 사라진다면 집에 있는 농경 도구들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농작물의 생산과 수확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개체의 행위능력을 발휘할 기회는 물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소멸될 위험을 뜻하며, 나아가 이들이 머무는 공간의 소멸까지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할머니는 농경 주체로서 모든 과정을 총괄하고 농가의 생태적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며, 그런 점에서 비인간 존재들은 할머니와 장기적 호혜 관계에 있다고 볼

19) 로버트 액설로드, 이경식 역(2012), 위의 책, 35~40쪽.

20) 집단 정체성, 친숙함, 협력과 관련한 한 연구에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친숙함을 느끼고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일군의 어린이들에게 사진 속 얼굴에 ‘마음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을 물었을 때, 같은 마을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을 때 더 빠르게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은 같은 낯선 사람이라도 이왕이면 자신과 같은 집단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돕고 싶어 한다.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이민아 역, 박한선 감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3(특별2판 1쇄), 158~160쪽. 물론 사람은 타자에게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동류의식을 반드시 물리적인 인접 거리에 있는 타자에게서 구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대와 나의 공통점을 찾아내고야 만다. 그러나 여기서 할머니의 농가를 중심으로 공생하는 등장인물들은 거주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미 같은 집단에 속하며 서로의 존재에 친숙할 수 있다.

수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할머니의 농가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연대성을 가지며, 지속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협력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분명히 있다.²¹⁾ 궁극적으로 할머니의 농경은 곧 그들의 생존이다. 그야말로 협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간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협력은 필연적이다.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의 시간까지 농경 활동은 겨울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농사는 사계절의 기후와 날씨에 따라 어느 정도는 규칙적으로,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농경의 규모가 크든 작든 요구되는 노동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에서 팔은 일차적으로 구성원들의 배를 채우고 협력을 다지게 하는 음식이지만, 농경문화의 맥락에서 보면, 씨 파종에서부터 관리·수확에까지 이르는 시간의 변화와 소요되는 모든 노동의 가치를 상징한다. 팔은 긴 시간과 노동을 수반하는 농경을 통해 얻을 수 있기에 수렵 채집자, 특히 이야기에서 사냥하며 사는 호랑이에게 그것은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음식이다. 호랑이는 힘들게 수확한 팔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그 농경 주체도 위협하는 캐릭터로 나타나므로 농경 사회에서 극도로 경계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할머니는 “야야 호랑아, 나는 지금 이렇게 풀을 많이 심어놨더니 내가 없으면 누가 이 풀을 가꾸겠냐, 이 풀이 잘 돼서 가을에 풀이 많이 열어서 풀을 거두어서 풀죽을 한 솥 끓여서 많이 먹은 후에 와서 나를 잡아 먹어라. 지금 잡아먹지 말고 가을에 와서 잡아먹어라.”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게 호랑이는 그러라 허고 갔다.²²⁾

21) 이야기에서 협력하는 인물들 중에 달걀이나 알밤, 개똥(소똥)은 차후에 얻을 이득이 없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고 궁극적으로 각각의 생산자인 닭, 밤나무, 개(소)의 생이 지속되므로 크게는 종족의 이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규식(2020; 131쪽)의 연구에도 동일한 논지로 언급되어 있다.

22) <할머니를 도운 계란 자라 물개똥 송곳 절구통 명석 지게>, 임석재전집 7 『한국구전

“할매 할매, 내가 먼저 댔는데 할매 자아 무야(먹어야) 되겠다 안자.”

“아이가 아이가, 내가 그래가 되겠나? 이 풀밭을 내가 애트지게 매 가지고 팔죽이나 한 그릇 짚이 묵고 죽어야제.”²³⁾

“할마이 오짚라카는? 내가 밭을 앞에 댔은께비로 할마이를 잡아 묵어야지, 내가 안 이겠나?”

“에이고, 그렇지마는 좀 참아라. 내가 이러구로 늙으이가 이 씨가시(씨앗)를 허리도 아프고, 그러구로 이래 숨가가지고 이 팔죽이라도 한그릇 묵고 내가 죽어야 안 대겠나.”²⁴⁾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지경이 되자 기지를 발휘하여 내가 지은 팔농사를 마치고 팔죽이라도 한번 끓여 먹고 죽겠다고 한다. 이 말은 이제 곧 죽을 목숨이니 먹고 싶은 것이나 먹고 죽게 해달라는 간청으로 들리지만, 힘들게 농사짓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죽도록 힘들게 일한 대가인 자신의 수확물을 만끽할 권리를 주장하는 말이다. 이는 농경문화에서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시간, 곧 가을을 향한 열망이다. 농사의 목적은 가을의 수확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죽을 시간을 ‘가을’로 미룬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 하면 고된 농사일의 최종 목표는 수확이며 그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밭을 매다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야기 후반에서 다양한 비인간 존재들이 팔죽을 모두 얻어먹는 것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올 농경의 시간을 기약하면서 연대를 다지는 행위이기도 하다. 송곳, 맷돌, 절구통, 멍석, 지게 등과 같은 농경 도구들이 수확시기에 활발하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등장은 가을 수

설화』(전라북도편), 184쪽.

23) <호랑이와 할머니>, 『구비문화대계』 8-4, 309쪽.

24)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구비문화대계』 8-5, 177쪽.

확기에 모여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의인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가을은 식량을 모아들여 저장함으로써 겨울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하다. 초기 농경사회에서 가을의 끝무렵과 겨울에, 식량을 저장해 둔 부족이 그것을 약탈하려는 다른 집단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었던 긴장의 상황을 상상해보자. 수확이 끝나고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면 사람들은 수확물의 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이야기 속 다양한 등장인물들처럼 침입에 대비한 방어 임무를 분담함으로써 보안 체계를 공고히 했을 것이다.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아무런 수고도 없이 다른 이가 애써 얻은 수확물을 얻어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농경 주체까지 잡아먹으려는 침입자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팔죽을 만들었던 동짓날의 상징적 의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상들은 일 년 중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저녁에 팔죽을 먹으면서 어둠을 보내고 사기()를 쫓아내고자 했다. 밤은 내일의 노동을 위한 휴식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몰고 오는 어둠은 태양 빛을 기다리게 하는 암흑과 두려움의 시간이기도 하다. 곧 겨울의 시작이다. 긴긴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하는 동짓날(팔죽 끓이는 날) 농가 구성원들이 팔죽을 먹고 야산에서 내려온 맹수를 함께 퇴치하는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농경의례로서 세시풍속을 의인화된 인물들의 대립 및 협력 관계를 통해 풀어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할머니를 돕는 비인간 존재들은 개별로 봤을 때는 미약하고 무용하다. 파리 한 마리, 송곳 하나, 알밤(달걀) 하나가 무슨 힘이 있는가? 지게, 멍석, 멧돌이 무겁고 크긴 해도 각 개별로 보면 특별하지 않다. 지게도 짊어질 나무나 곡식과 같은 짐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땀 사람이 필요하다. 멍석도 펼쳐놓았을 때 널어둘 것과 돌돌 말 때 말아야 할 대상이 필요하며 그 일을 할 주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멧돌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모두 ‘농경’을 통해 그 필요성이 부여되고 강화되어온 것들이다. 농사는 이것들의 활용없이는 힘들다. 자라, 개똥(소똥), 게, 달걀, 알밤 모두 그

러하다. 인간이 농경을 위해 정착하고 가축을 키우는 정주 공간에서 이들은 모두 인간 주변에서 존재하게 되는 산물이자 생태적 공생자들이다.

이 이야기에서 특히 주목하는 사실은 농경 문명에서 만들어진 도구들, 농경을 통해 얻은 수확물, 그리고 농경 주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는 결국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농경 주체의 삶, 그리고 주체의 농경을 지원하는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의 순환 주기에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사를 준비하는 때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일하는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야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쉬는 때가 온다. 그러나 이어지는 겨울은 추위와 황량함을 견뎌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농경 사회 구성원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여러 해 겪으면서 각자의 생체적 리듬을 형성하고, 각 절기()에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발명하고 사용법을 익혀왔다. 곧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이 언제인지,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다. 때에 따른 역할 분담은 필연적으로 협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나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다들 각자의 역량을 해당 맥락에 맞게 적절히 전환하여 발휘할 수 있다. 곧 농경문화에서 공동체의 분업과 협력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계절의 순환과 그에 따른 생태적 환경에 대한 적응 및 그 보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어느 사회에서나 누군가와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희망을 준다. 특히 믿을 만한 상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 됨으로써 외부의 위협(덜 믿을만한 혹은 미심쩍은 상대)으로부터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체계가 된다. 생태계 대부분의 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을 유지하고 번식해 나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매일 타인과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일하고, 노동을 통해 얻은 수확물을 분배하고 저장하며, 그것을 다른 집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지키는 일들을 해왔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이러한 협력의 과정들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는 농경 사회에서 인간이 구축한 문화적 공간에 야생의 존재, 혹은 비농경 주체가 들어와 농경 주체를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공동체의 존속을 방해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공고한 시스템은 바로 주체들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임을 이 이야기는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협력은 그냥 일어나지 않으며 협력의 효과를 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협력에 관한 이론과 이야기 속 상황을 통해 협력의 지향점과 조건이 대략 다음과 같이 유추될 수 있다. 첫째, 구성원들이 지닌 자질들의 몇 가지를 선택하여 하나의 목표에 초점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구성원이 이룩하는 다양성은 공동체를 스스로 지키는 풍요로운 도구적 모듈로서 재능과 인력의 풀(pool)이 된다. 곧 다양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다. 셋째, 협력은 장기적 상호 영향 관계에 놓였을 때 공고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미래의 이득이 보장되는 경우에 더 잘 이루어진다. 넷째, 농경문화에서처럼 협력의 시점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예상되고, 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될 때 구성원들의 분업적 협력과 유연성은 더 강화된다. 그러므로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서 나타나는 ‘협력’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협력 모델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생태적 농경문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구비문학대계』 8-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778쪽.
『구비문학대계』 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1160쪽.
임석재전집 2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편Ⅱ)』, 평민사, 1989, 7~331쪽.
임석재전집 7 『한국구전설화(전라북도편Ⅰ)』, 평민사, 1993, 7~371쪽.
임석재전집 10 『한국구전설화(경상남도편Ⅰ)』, 평민사, 1993, 7~365쪽.
임석재전집 12 『한국구전설화(경상북도편)』, 평민사, 1993, 21~202쪽.

2. 논저

- 권혁래,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490~845쪽.
신혜선, 「전래동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의 의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467~487쪽.
신연우, 「〈늑두영감〉과 〈팔죽할머니〉 설화의 문화사적 이해」, 『구비문학연구』 제4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5, 1~28쪽.
정규식, 「〈팔죽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의 니치적 특성과 공생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 『탈경계인문학』 13(2), 이화인문과학원, 2020, 113~137쪽.
최성미, 「전래동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 나타난 민속학적 요소의 다층적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30, 2022, 179~214쪽.
박성혜, 「설화 〈팔죽할머니와 호랑이〉에 나타난 비인간의 힘」, 『구비문학연구』 제6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23, 157~188쪽.
-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이민아 역, 박한선 감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릿, 2023(특별2판 1쇄). 4~393쪽.
레비 스트로스 저, 안정남 역, 『야생의 사고』, 한길사, 2005, 18~423쪽.
로버트 액셀로드, 이경식 역, 『협력의 진화』, 시스템아, 2012(2쇄), 11~292쪽.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2009, 5~390쪽.

ABSTRACT

A Study on the Bricoleur Conversion in the Culture of
Agriculture and the meaning of Cooperation in the tale of
〈A Red bean Soup Granny and a Tiger〉

Jeon, Ju-hee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culture of agriculture and the characters' cooperation in the tale of A Red Bean Porridge Granny and A Tiger . These characters' conflicts in the whole story can be sorted out into two types which are the conflict of a granny and a tiger, and one of a tiger and several non-human characters who lived in the granny's home. This second conflict involves the cooperation of the granny and non-human characters. The potter, here, is triggered by the laboriousness of farming that the granny feels, and the latter is induced by sharing the red bean porridge that the granny made. These conflicts have significant meaning because both of them are universal experiences humans have gone through in history and the laboriousness of farming is eventually connected to the joy of redbean crops. This study is,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behavior of cooperation because it can occur only with those whom you want and choose, and cooperation relationship also always visualize their relation and its effects unlike conflict relationship is not always visualized in their relations that can be with anyone. That is, cooperation has a reasonable background and purpose.

With these perspectives, the story can be analyzed as revolving around the aspect of characters' cooperation in the second chapter, and showed that their cooperation set can be considered 'bricoleur conversion'. In the third chapter, this article suggested that the granny's laboriousness seemed to recall non-agriculture which symbolizes a tiger, however, it paradoxically verifies the power of agriculture that involves cyclical living culture, diversity, specialization, and cooperation of communities. The

tale of a red bean porridge granny and a tiger , therefore, is a metaphor featuring characters' conflicts and cooperation and solar term, that about humans' culture of agriculture that they have gone through with nature, labor, threat of enemies and their communities' driving force to prevent themselves against any threats.

Key Words

<a red bean granny and a tiger>, agrculture, bricoleur, cooeration, diversity, specialization, non-agriculture, solar term, cyclical life

논문투고일: 2023.09.23.

심사완료일: 2023.11.01.

게재확정일: 2023.11.02.